

2016.3+4 | Vol. 183

DAIL



I  NEPA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햇살 속에...

가평 설곡산 다일공동체 넷가를 보니 겨우내 얼었던 모든 것들이 녹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굳은 땅과 얼은 물이 녹아 내리듯이 굳은 마음도 얼어붙은 관계들도 모두 따스한 봄 햇살에 녹아서 서로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일처럼 아파하고, 잘 되고 기뻐하는 이들을 질투하지 않으며 남이 잘 되는 것으로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바로 다일과 함께 하는 후원회원 여러분들 이십니다.

다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습니다.

다일의 후원회원 여러분들 또한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꽃과 열매입니다. 무언가를 하면 꽃(영광)과 열매(업적)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다일은 시작하였을 때부터 단지 내일의 소망을 씨앗으로 심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눈물과 땀으로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에 뿌려졌고 다시금 그 안에서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며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울며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습니니다. 다일은 어느 곳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씨 뿌리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감명 깊게 읽은 '나무를 심는 사람'에 나오는 양치기 부피에의 삶처럼 이기심과 탐욕, 전쟁과 자연 파괴의 환경에도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 그의 모습을 닮고자 합니다.

오늘, 후원회원 여러분들도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과는 상관없는 참 평안이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형제, **취** 믿든 불림



c.o.v.e.e.r.s.t.o.r.y

짜이머시

카트만두 마누하르 빈민촌의 아이들이 네팔의 회복과 안녕을 기도합니다.

CONTENTS

02

네팔은 아직도 아픔니다
네팔 지진복구 1년

06

네팔에 온기를 불어넣다.
순천대학교 자원봉사 후기

10

작아진 툰네샵
3월 22일은 물의 날

14

물은 생명입니다.
캄보디아 우물 이야기

18

웰다잉에서 웰빙으로
다일 작은천국 입소자 이야기

21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22

오금동 웃음꽃 아이들
봉사이야기

24

현장이야기

34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06

네팔에 온기를 불어넣다.



10

작아진 툰네샵





네팔은 아직도 아픔니다

네팔 지진복구 1년

최 흥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지급한 긴급구호 물자를 나르는 주민들

9,000여명의 사망, 25,000여명의 부상

2015년 4월 25일은
네팔에겐 잊지 못할 슬픔입니다

지진 직후부터 8차에 걸친 긴급구호활동을 벌여온
다일공동체의 눈으로 본 네팔지진 그 이후 1년



마을 공동화장실 건축 현장

네팔의 지진은 2015년 4월 25일에 7.8의 강도로 발생되었습니다. 아이티 지진 후에 다음 지진 지역으로 예고되었던 곳이 네팔이었는데 예고된 그대로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일동안 예고되었던 것에 반해 지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9,00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25,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들이 즐비하게 무너졌고, 100만 채에 가까운 집들이 부서졌습니다. 대지진의 충격은 네팔을 마비시키다시피 하였지만 사재기를 하거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늦장대처나 무계획에 가까운 지진복구와는 달리 국민들은 침착하게 인내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며 복구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대지진 이후 5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었고, 여진의 빈도가 줄어들어 복구를 시작하려고 할 때쯤 네팔에는 우기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기철이 끝나가던 9월 20일, 10여년 동안 사투를 벌이며 해결하려고 했던 네팔 헌법이 제정 발표되어 네팔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팔의 헌법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도의 봉쇄조치가 시작되었고, 5개월가량 지속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지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도의 봉쇄조치였다고 할 만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기름, 가스를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곧바로 전기의 대란이 시작되었고 20여년 만에 찾아온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기름을 얻을 수 없는 차들은 대부분 멈추어 섰고, 사람들은 버스 지붕에 매달려 다니기 일쑤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지진의 복구는 마음뿐이지 실제로 나무를 베어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정도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진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네팔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지진으로 무너진 국민들의 삶과 봉쇄조치로 메말라 버린 삶은 가뭄에 한 줄기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 없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학교와 교회를 재건하고, 고아원을 세워서 네팔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진 후에 온 세계가 보여주었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고 규제는 늘어 어려움은 늘었지만 관심과 동참은 저만큼 멀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진 후에 보여주었던 지구촌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능했던 긴급구호는 네팔에 함께 있는 사람으

로서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팔 사람들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열방의 지구촌 가족들이 앞 다투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땅을 다니며 복구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복구를 도와야 합니다.

네팔 다일공동체 역시 지진 직후부터 시작한 긴급구호에 이어 시행해 온 이동밥퍼, 응급의료캠프, 쌀과 천막과 모기장 나누기, 공동화장실 만들기, 방역을 비롯한 위생교육과 여성용품 전달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며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지진으로 어려워진 가정과 아이들을 세우기 위한 고아원을 짓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지진복구에 최선을 다해 네팔이 세계의 지붕으로 우뚝 서고, 태고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브의 휴식처 에베레스트(EVEREST)에 세계 열방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DaIL**

마을 주민들에게 긴급구호 물자 지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마을로 30KG의 쌀을 지고 가는 박상원 홍보대사



네팔을 구하라!

네팔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이며, 특히 세계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가 있는 히말리아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곳 중 하나입니다. 관광 수입이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나라이지만, 2015년 지진 이후에 관광객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객의 수는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증가는 네팔이 현실적으로 일어설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일공동체에서 4월에 네팔비전트립이 있습니다. 네팔 다일공동체의 지진복구 현황과 네팔에서의 사역을 두루 살펴보고 네팔의 자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기간 : 2016/03/28(월) ~ 2016/04/04(월) 7박 8일

대상 : 다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프로그램 : 지진피해교회 재건 헌당 및 카트만두 발퍼봉사, 안나푸르나 트래킹 등

참가비 : 250만원(항공, 숙박, 활동비 전체 포함)

신청문의 : 변창재 국장 010-3797-8315

천은영 대리 010-5167-5186

다일공동체 02-2212-8004

신청마감 : 2016/03/18(금) 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월 비전트립에서 네팔을 경험해보세요!



2015년

7.8

강도 지진
발생

MOUNT
EVEREST

네팔에 온기를 불어넣다

안 소 이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12학번



위생교육

설렘 가득한 준비 기간

길지 않았던 준비 기간, 한 달 남짓... 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네온 팀원들은 네팔을 위한 준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바쁜 시간을 보냈었다. 처음 만났던 날 서로 어색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팀원들과 MT 준비, 교육봉사, 물품 준비 등을 하면서 웃기도 많이 웃고 남몰래 울기도 했지만 돌아켜보면 모두 다 즐거웠던 추억인 것 같다.

나는 해외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간호 실습과 겹쳐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팀원들이 오하려 나를 다독여 주며 이해해주어서 멀리 있었지만 나도 더 열심히 활동하려 노력했었다.

드디어 만난 네팔

1월 3일 마지막 물품 정리를 끝으로 4일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 버스에 올랐다. 인천공항에도 착해서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내가 진짜 네팔에 가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또 그와 동시에 감정이 벅차올랐다. 오랜 비행을 끝으로 저녁 11시경 그토록 원했던 네팔에 도착하였다. 처음 보는 네팔의 모습은 어두컴컴하였고 길거리에는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네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제야 나는 네팔에 온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네팔에 대한 기대로 설레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본 네팔의 모습은 두려웠고 무서웠다. 숙소에도 도착했을 때도 우리와 다른 모습인 네팔 사람들이 낮설었고, 다음날 아이들을 만날 기대였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난다.



트레킹 중 만난 히말라야의 일출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우리 팀원들이 네팔 다일공동체 봉사활동 중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이들에게 아침을 나누어 주는 '밥퍼'활동이었다. 네팔 다일공동체 최홍원장님은 이 밥퍼 활동을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라는 일념으로 매일 아침 하는 활동이라고 하셨다. 빈민촌 아이들에게는 이 아침이 그날 하루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우리가 그 시간에 늦을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었다. 매일 아침 센터를 찾아가면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약속의 중요함,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 끼 식사와 물. 우리들은 이미 우리가 베풀기도 전에 이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빈민촌의 생활

네팔 다일공동체는 빈민촌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센터이다. 그래서 봉사 첫째 날에 우리는 빈민촌을 둘러보게 되었다. 네팔 빈민촌에 대한 상상은 한국에 있을 때도 했었지만 실제로 본 빈민촌의 환



밥퍼봉사

경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열악하였다. 허리를 펼 수 없는 실내, 천막 하나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집, 악취나는 돼지우리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안타깝기만 했다. 너무나 추운 날씨에 피워놓은 불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다가 한 줌 재가 되어버린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보며 위생교육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꼈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호프 스쿨 아이들

우리 팀이 준비기간 동안 주된 시간을 쏟은 프로그램은 바로 교육이다. 담임제로 할 것인지 팀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담임제로 결정이 된 후부터는 프로그램 준비, 물품 준비 등 교육봉사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실제 환경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어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과 급하게 바뀌어야 했던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잘 해결해 나갔던 것 같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올림픽이나 문화공연 모두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이들보다 더 큰 행복을 마음에 담았던 것 같다.

처음에는 아이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 아이들을 예뻐할 수 있을지



음악교육

네온팀 단원들

걱정이 되었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티 없이 맑은 웃음을 가진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봉사활동 중 한 아이가 “아추아추”하며 열음장같은 내 손을 자신의 입김으로 호호 불며 녹여주었던 때가 있었다.

내가 아이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이 아이와 함께 있어준 것 뿐이었는데 이 아이는 나에게 그보다도 몇 배 값진 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었다. 마지막 날 처음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 우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 한켠이 너무 찡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내가 네팔에 와서 한 경험들이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처럼, 네팔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왔다 간 것이 행복과 추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다.

새벽이 멋진 히말라야

히말라야 트래킹을 할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내가 과연 팀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 트래킹을 대비하여 매주 등산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다. 그런데 히말라야 트래킹을 시작하고 이러한 걱정들은 필요가 없었다. 팀원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페이스에 맞추면서 서로 격려를 하며 올라갈 때 '이번 트래킹은 모두가 잘 끝마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다. 만일 혼자였더라면 하지 못했을 일을 팀원 모두의 힘과 격려 덕분에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히말라야 트래킹 셋째 날에는 새벽 5시에 출발하여 일출을 보기로 했었는데 이 날이 가장 힘든 날이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다. 새벽 5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손을 녹이며 등산을 했었다. 일출을 놓칠세라 평소 올라가는 페이스와는 달리 조금 서둘러야 했었는데 이 날 정말 많이 힘들었다. 힘든 등산을 이어가는 도중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우연

참게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금방이라도 내 얼굴로 쏟아질 것 같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광경에 눈을 땔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네팔에서는 유독 반짝이는 금성을 내가 지금 히말라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벅찼다. 너무 추웠지만 하늘 위에서 수많은 별들이 나를 밝혀주고, 옆에는 네온 팀원들이 함께 있었기에 마음 만큼은 따뜻했다. 내 마음속에 담은 그때의 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 팀원들, 선생님과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함께라서 더욱 더 큰 행복이 된 것 같다.

던여bat, 네팔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네팔에서는 감사한 것이었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항상 웃고 있는 네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더 넉넉한 환경에서도 인상 찌푸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봉사하러 온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감사함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네팔에서의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만났던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던여bat, 네팔 **dail**



페인트 봉사



음악교육

아이들과 줄다리기 청백전



세계 물의 날

기후변화의 영향일까요?
캄보디아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World Water Day
3/22





작아진 톤레삽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캄보디아 지명이기도 한 '톤레삽'은 거대한 호수라는 뜻입니다. 톤레삽은 캄보디아 중심부에 위치하며 호수 남북의 길이가 300km가 넘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호수가 현재는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작은 지류들을 통해 톤레삽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지류들이 바닥을 보일 만큼 수위가 낮아지고 호수 주변부가 물으로 드러나며 외경이 작아졌습니다.

씨엠립 댐퍼센터 뒤로 보이는 말라버린 톤레삽 호수
말라버린 호수에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다.

2011년 처음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본원이 있는 시엠립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당시 메콩강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강물이 베트남을 거쳐 남쪽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다시금 메콩강과 연결되어 있는 캄보디아 호수 톤레삽으로 흘러들어 육지까지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톤레삽 복단에 위치한 시엠립 시내가 모두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시내는 도로마다 물로 가득해 배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본넷 속까지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지기 일쑤였으며, 집 앞마당에도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민물 게와 물고기까지 잡았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센터도 시엠립 강을 따라 톤레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호수가 범람하여 직원들이 출근마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낮은 지역과 낮은 집을 지은 곳은 모두 수몰되어 많은 이재민을 낳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쭉크니어 지역에서 긴급재해지원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저는 재차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파견되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우기였기에 많은 비와 물을 상상하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매일 같이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비가 오는 날을 손에 꼽

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캄보디아 최대의 축제 중 하나이며 국가행사인 물축제가 취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콩강 수심이 낮아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톤레삽으로 가려면 큰 배를 타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톤레삽 지류에서 배를 타지 않고 호수 근처까지 이동하여 보트로 호수에 진입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기후변화로 물이 적어지고 톤레삽이 작아짐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호수 주변 서민들에게로 돌아 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물을 풍요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물이 부족하며 기근이 들면 그로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지만 물이 많으면 메콩강과 톤레삽에 물고기가 많아져 어획량이 늘어나고 물에 떠다니던 유기물과 부유물이 톤레삽 주변 농경지에 영양분을 풍성히 공급하기에 쌀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어 톤레삽 주변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톤레삽 주변 주민들은 지금도 물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물이 생명과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기온과 급작스런 기후 변화로 인한 톤레삽의 변화는 곧바로 인근 지역의 가난한 이들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주변 가난한 이웃들이 이 높은 황량한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DAJL**

2011년 톤레삽 범람





말라버린 주거지



물은 생명입니다

캄보디아 우물이야기



다일공동체는 2004년 캄보디아에 지부를 설립하여 무상급식(밥퍼, 빵퍼) 및 아동결연(품다임), 교육(꿈퍼) 및 의료지원,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나무배 지원사업) 등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이 최근 PD수첩에서 다뤘던 우물개발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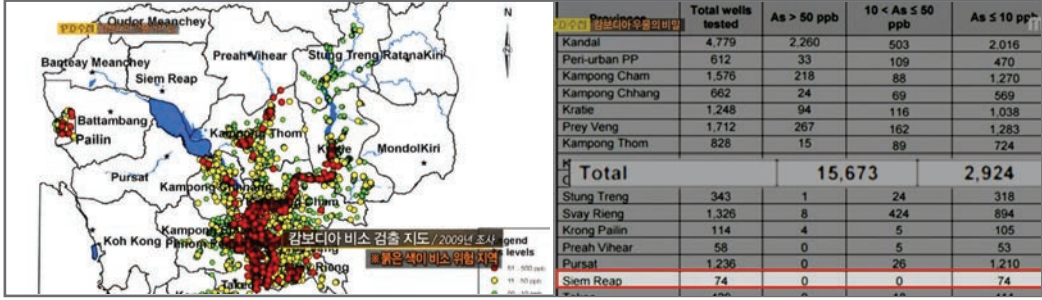
현장을 가보지 않고 방송만 본 경우엔 얼마든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NGO 대부분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게 여길 수 있도록 방송한 대목은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우물개발과 관리

물이 생명이기에 우물 하나를 파고 공급할 때에도 섬김의 영성과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예수가 생명이듯이 물이 생명이기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스태프들은 우물을 파기 전부터 생명수를 공급하려는 기도와 준비(비소 및 수질오염조사,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지역 지역 내 주민이 우물을 요청하면 우물공급 지침에 따라 우물을 공급하고 주민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방송에 언급했던 비소 오염에 따른 중독 및 심각한 합병증



2016년 2월 16일 방영 MBC PD수첩 "캄보디아 우물의 비밀"



캄보디아 비소 검출 지도 및 조사 우물 갯수(출처: MBC PD수첩 캡처)

2015-468

RESULT OF ANALYSIS

Organization / company	KIA MOTORS Tel: 012 677065		
Type of sample	Water Code: BB.C		
Sample submitted date	21 December, 2015		
Parameter	Standard of drinking water	Unit	Testing result
arsenic (As)	< 50	µg/L	0
chloride (Cl)	< 250	mg/L	224
fluoride (F)	< 1.5	mg/L	0.2
manganese (Mn)	< 0.1	mg/L	0.0
Total dissolved solid (TDS)	< 800	mg/L	59
iron (Fe)	< 0.3	mg/L	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밥퍼센터
우물 수질검사표 (출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밥퍼센터의 정수된 물을 마시는 아이들

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이 있는 지역의 비소지층으로 인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주 활동지역인 씨엠립에서는 위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소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검출되더라도 WHO기준인 10ppb이하이기에 음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프놈펜의 경우 다일공동체에서는 비소 위험으로 인해 우물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이미 3년 전부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없는 우물공급 사역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서둘러 적정기술 연구팀이 주축이 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와 손잡고 대안없는 우물파기 보다는 정수된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씨엠립의 밥퍼센터에서는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서 만들어 주신 정수기를 이용해 날마다 500명이 넘는 아이들과 많은 주민들이 비소가 전혀없는 물을 날마다 마시고 있으며 캄보디아 김형길 원장

님도 하루도 빠짐없이 주민들과 이 물을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12년 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설립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하얀 교복을 흉당물에 빨아 황토색으로 된 것을 입고 돌아다니던 아이, 오염된 물로 인해 피부병과 설사, 복통을 호소하며 다일 천사클리닉을 제치처럼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밥퍼, 빵퍼와 함께 물퍼로 우물을 파주었을 때부터 아이들은 눈부시도록 하얗게 된 교복을 입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약을 발라도 소용없던 아이들의 피부가 아물고 설사와 복통이 멎는 것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물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완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 내 우물의 공급 개수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러 우물개발 사업은 정수관리 사업으로 바뀌었고 다일 클리닉, 배 지원 사업과 같은 주민들에게 필



씨엠립 다일 클리닉에서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지원한 배를 받은 수혜자들

요한 또 다른 귀한 목적사업으로 방향을 돌리고 완벽하게 정수된 물을 마음껏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현재의 모습도 갖췄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꼭 보고 와야 할 곳,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그동안 하나투어로 시작되어 한국의 여행사마다 앞 다투어 '캄보디아에 가면 꼭 보고 와야 할 10곳' 중에 한 곳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소개할 만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칭찬에도 우쭐거릴 것도 없고, 억울한 일에도 실망하거나 가족을 일 없이 오로지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다일의 후원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과 종교가 없는 분들 가릴 것 없이 이념도 종교도 다 초월한 사랑만을 실천하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되기 위해 언제나 이 걸음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씨엠립 국민은행-다일 도서관



씨엠립 트레샤 호수 다일 수상유치원





센터 배식



씨엠립 빵퍼준비

28년 전 청량리 역 광장 바닥에 주저앉아 라면을 끓이던 처음 정신을 항상 잊지 않으며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참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다일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와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il**

[왼쪽]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센터 전경
[오른쪽] 씨엠립 나무배 조선소



웰다잉에서 웰빙으로

다일 작은천국 입소자이야기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세례받는 김휴식씨



다일공동체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숙인요양시설(쉼터) 다일 작은천국은
이 땅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분들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 마지막 삶을 평안하게 지내시는 곳입니다.

현재 다일 작은천국에는 총 35분의 입소자분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 암환자를 비롯하여 중증의 질환을 가진 분이 8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았지만, 다일 작은천국에 들어와서부터 기적과 같이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분도 계시고,
병에 걸려서 왔지만 완치되어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분들은 다일 작은천국 스텝들의 꾸준한 상담과 보살핌
자활훈련을 통해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시한부의 삶이지만 곳곳이 삶을 이어가고 계신 입소자 김휴식씨의 생활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끝나는 줄만 알았던 인생, 반전 스토리

비강암 말기, 시한부 삶을 이어가는 김휴식씨

“따르릉~” 2014년 3월 6일… 다일 작은천국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역 다시서기 상담소에서 입소 문의 전화가 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대면한 김휴식씨의 건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012년 비강암 진단을 받아 턱관절부터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왼쪽 눈이 아예 실명되었고 연이는 사고로 인해 오른쪽 눈마저 다쳐, 양쪽 모두 실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암 전이로 인하여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휴식씨는 생명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2달 남짓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감한 어둠밖에 볼 수 없는 김휴식씨에게 한 줄기 작은 빛이 되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김휴식씨를 다일 작은천국의 한 식구로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양쪽 눈 실명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해보겠다는 의지가 남달랐던 김휴식씨는 정상적인 사람이 1, 2번이면 익힐 지리를 손을 휘저어 가며 오직 감만으로 100번, 200번 반복하여 지금은 혼자서도 작은천국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폐해진 김휴식씨의 삶의 질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올려주기 위해 주 2~4회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김휴식씨에게 임종은 사람이 겪는 자연스런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임종에 대한 정신적, 영적, 사회적 두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 상담을 통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반기를 소망하여 2015년 2월 13일 최일도 목사님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나서 김휴식씨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다시 새로 태어나는 기쁨입니다.”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김휴식씨의 어둠과 같았던 호스피스 생활은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휴식씨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김휴식씨에게 한 명 뿐인 동생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생과 매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동생은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여 김휴식씨를 위로하고 갑니다. 김휴식씨에게 동생을 찾은 것은 삶에 대한 큰 의지가 되어 지금도 동생이 오는 날까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일 작은천국에 입소하기 전만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던 김휴식씨와 지금의 김휴식씨는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6일, 2달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휴식씨는 더 이상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다일 작은천국에 입소하여 다시 태어난 김휴식씨는 매일 기도를 하며 신앙 생활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가끔씩 기력이 좋을 땐 직원들과 농담을 할 정도로 다일 작은천국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입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well-dying)이 웰빙(well-being)으로 변화되는 삶, 바로 다일 작은천국의 삶입니다. **DaIL**



>>> 시간을 가지세요

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성공의 대가를 줍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힘의 원천이 됩니다.

노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영원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지혜의 샘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삶의 가장 높은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 됩니다.

베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꿈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그대의 수레를 별에다 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뜻을 품는 것입니다.)

오금동 웃음꽃 아이들

밥퍼는 _____ 이다. 박 효 정



웃음꽃이 시작된 지 벌써 만 5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당시 오금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둔 엄마들이 학교에서 진행했던 부모 교육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만든 동아리입니다.

실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아이들은 함께 키워야 한다는 마음들이 모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교육, 미디어 연수 등 아이들과 실제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여러 활동들도 하고 정신대 수 요집회 참석, 대화법 등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2014년 2월 처음 밥퍼에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모두가 받은 마음의 충격은 꽤나 깊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여름방학에 2번, 겨울방학에 2번씩 아침 7시 40분에 방이역에 다 같이 모여 청량리 다일공동체로 향합니다. 가서 다듬고 썰고 씻고 준비하며,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설거지를 하고 함께 정리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마음 안에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를 새기고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감사를 나눕니다

밥퍼니눔운동본부 ☎ 02-2214-0365

밥퍼는 희망이다

어려운 이웃들은 따뜻한 밥 한끼를 먹으며 삶의 희망을 찾고, 나 또한 봉사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오륜중3 고아라**

밥퍼는 길이다

소외된, 외로운 이웃들을 만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 **방산중3 김유랑**

밥퍼는 관심이다

무관심에서 시작되면 무관심으로 끝나는 법입니다. | **오금중3 박기정**



밥퍼는 햇빛이다

주는 사람 마음도 받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어 희망이 생겨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 **세룬중3 박유나**

밥퍼는 생명이다

밥퍼가 쉬는 날, 누군가는 하루 끼니를 걸러야 한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밥퍼는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눔이 된다. 나에게 봉사와 일이 아닌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밥퍼는 생명입니다! | **오금중3 양서현**

밥퍼는 전화기이다

이웃들과 사랑하는 마음, 함께한다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 **신천중3 이강준**

밥퍼는 나무이다

무언가를 원하지않고 베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 **세룬중3 이영재**

밥퍼는 맘퍼이다

밥 뿐만 아니라 마음을 퍼 주기 때문입니다. | **오금중3 이준서**

밥퍼는 함즐함술이다

함께 밥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 할 수 있고, 현실을 보며 함께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룬중3 김재연**

밥퍼는 반가움이다

갈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 **세룬중3 이정원**

밥퍼는 긍정의 힘이다

할 수 있고 니룰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금중3 이준찬**

밥퍼는 심장이다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심장처럼 밥술, 칼, 도마, 사람들의 손놀림, 식판이 쉼 없이 움직입니다. 덕분에 삶을 유지합니다. | **오금중3 이진욱**

밥퍼는 참회의 장소이다

나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오금중3 이태규**

밥퍼는 +이다

나눔을 더하고+마음을 더하고+행복을 더하고+제일 중요한 밥을 더합니다. | **세룬중3 조동균**

밥퍼는 성찰이다

왜냐하면 나를 되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금중3 조정호**

밥퍼는 마음의 휴게소이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함께 밥을 드시는 분들도 모두 마음의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 **방산중3 최성필**

밥퍼는 대장장이의 망치이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내가 제련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 **오금중3 황유**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살롱!

네팔을 사랑하시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2016년이 시작된지 한참 되었지만 민족의 대 명절인 설을 맞아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추운 겨울의 삭풍과 흰 눈도 이제는 새 생명을 일으키는 힘으로 찾아온 봄소식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연약함의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팔의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만에 풀린 인도의 봉쇄조치

2015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인도의 봉쇄조치가 드디어 2월 9일에 끝났습니다. 지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어지는 우기철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가 복구하려고 서서히 힘을 모을 때 인도로부터 봉쇄조치가 시작되어서 기름, 가스, 전기를 비롯한 생필품의 대란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20여년만에 찾아온 추위로 인해서 무척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했는데 봉쇄조치가 풀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난 5개월동안 너무 많이 오른 물가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팔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주시시오.

김태성 목사님 가족과 지인들의 밥퍼봉사



지진복구 활동의 새로운 시작

네팔의 지진은 7.8 강도의 대지진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두 번의 강진과 오백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5.5강도의 여진이 와서 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우기철과 봉쇄조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려한 개인적인 복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봉쇄조치가 끝났기에 최대 지진피해지역인 신두 팔촉에서 고아원과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는 복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합니다. 지진 후 더 어려워진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복구활동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다시금 사랑과 나눔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손길들

네팔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해외 봉사활동팀인 네온의 종합적인 봉사, 강남대 학생들의 밥퍼봉사,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의 영감이 넘치는 연주회 봉사, 네팔에 수력발전소를 세우고 있는 남동발전의 빈민촌 아이들 후원활동, 흥익교회 손철구 목사님을 비롯한 청년들의 밥퍼 봉사, 꿈의 학교 학생 50여 명의 밥퍼봉사, 김태성 목사님 가족과 지인의 밥퍼봉사, 수산교회 청년부의 밥퍼봉사, 김명옥 선교사님 가족들의 밥퍼봉사, 한동대 학생들의 밥퍼봉사, 카톨릭대학 졸업생 3인의 재능기부 봉사, 주안장로교회 청년부의 밥퍼 및 호프스쿨 교육봉사활동과 그 밖의 개인 봉사자들의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과 함께 히말라야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푼힐트레킹 및 티문화 탐방을 통한 배움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DAIL**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기도제목

1. 네팔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주소서.
2. 무너진 교회수축과 고아원 설립을 도우소서.
3.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밥퍼를 축복하소서.
4. 호프스쿨을 통해 인재가 양성되게 도우소서.
5. 미성교실을 통해 여성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6. 포카라 빵퍼와 한글학교를 도와주소서.
7. 일대일 아동결연자가 500명이 되게하소서.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최홍 원장: 977-98038-00670,
977-98494-58330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위]네팔 호프스쿨 아이들 [아래] 남동발전 후원금 전달

필리핀

PHILLIPHINE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기독교보육원 학생들의 찬양

귀한 나눔의 시간

21일에는 아주 귀한 고등학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기독교보육원 학생들인데 부득이한 저마다의 사정으로 보육원에서 성장한 학생들입니다. 밥퍼 준비를 돕는 투박한 칼질과 야채를 다듬는 어설픈 손짓들이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마을을 잠깐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환

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6년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2016년의 힘찬 출발을 더욱 다짐하며 필리핀 스텝들의 일일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센터 안에서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마음도 알아차리는 귀한시간이었습니다.

저마다 힘든 고비들이 있었고 아직 지금도 그것이 끝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일이 있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밥퍼의 사역이 주님 오시기까지 지속 될 수 있기를 마음모아 기도하였습니다.

다일유치원 졸업

지난 해 아기의 모습이 남은 듯 입학한 아이들이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식 연습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의젓함이 묻어나고, 더욱 힘찬 진노랫소리가 우렁차게 센터를 울립니다. 한껏 상기된 모습으로 곧 초등생으로 당당히 서게 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dai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기독교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사랑의 마법-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Dream For(꿈퍼)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꿈퍼 6명의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힘써주시는 강기호 목사님(데오스학교, 드림교회)과 학생, 학부모님이 1월 말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오셔서 밥퍼, 빵퍼 등 능숙한 솜씨로 봉사하셨을 뿐 아니라 일일 자원봉사자들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또한 꿈퍼 학생들의 생활비로 1,000불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 초창기부터 함께 하시고 중국 다일공동체에 마음을 모아주시는 조준영 교수님 가정도 2월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아주셔서 봉사하시고 1,000불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교수님은 중국 다일 가족 한 연 자매가 대학 졸업하기까지 후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연 자매가 대학을 졸업해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음을 아시고 한 연 자매를 만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조준영 교수님 가족들



김일재 목사님과 아천동교회 16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2월에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비전트립 일정을 가지셨습니다. 밥퍼, 빵퍼 봉사와 함께 꿈퍼 등을 후원해 주셨고 특별히 목사님은 꿈퍼 학생들이 꿈을 이룰수 있도록 또한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익숙하게 지내왔던 분들이 사랑의 마법이라도 걸린 듯 캄다일을 다시금 찾아주시고 나눠주시고 봉사해 주시니 그 사랑의 열기가 가슴 깊이 뿌리 내린 것임을 보며 찾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dai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아천동 교회 꿈퍼후원

드림교회 꿈퍼후원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베트남의 명절

한국에 있는 후원회원님 그리고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에는 가족이 없어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밥퍼 식구들을 위해 한결같이 이웃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는 VEGAS회사와 함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밥퍼에서 봉사 및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VEGAS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밥퍼를 찾는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 120명에게 쌀과 각종 조미료(소금, 간장, 미원, 설탕 등)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손에 들기에도 버거울 만큼 넘치는 선물을 받은 밥퍼 식구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고국의 가족을 생각하며 베트남 다일공동체와 함께 이웃을 섬겨주신 VEGAS임직원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주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aIL**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2016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HÚC MỪNG NĂM MỚI"



독거노인 명절 선물전달



VEGAS 임직원들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3기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호프클래스 2기 졸업 후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스태프들은 호프클래스 3기 생들의 입학에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꿈파학교인 '다일비전센터'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여 당분간 밥퍼센터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스태프들은 제일 먼저 밥퍼센터의 벽면을 페인트칠을 하고, 바닥의 돌들도 니스칠을 새로 했습니다. 여자 스태프들은 교복과 책가방을 준비하고 새로운 학습교재도 준비했습니다.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몸은 힘들어도 신입생들을 맞을 생각을 하니 마음은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2월 1일 호프클래스 3기 신입생들 40명이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 2기 선배들을 통해 호프클래스를 알고 있던 터라 호기심 가득하고 설레는 마음들이 가슴으로 느

껴잡니다. 새로운 교복과 책가방을 받은 아이들의 행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번 3기생들중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씨클셀 유전병을 앓던 3명 가운데 버나드가 2기생으로 졸업하여 일반학교로 편입학 하더니, 나머지 2명이 3기로 들어왔습니다. 한쪽 눈은 장애지만 미소가 예쁜 아이도 있습니다. 1, 2기 졸업생들의 동생도 몇 명 있습니다. 눈이 참 많이 닳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순박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은데쉬 선생님도 노하우가 생겨서 아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의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목소리도 우렁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회원님, 이번 3기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탄자니아 쿤두치 채석장 빈민촌의 꿈이 없던 아이들이 호프클래스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호프클래스 3기 파이팅!! 후원회원님 감사합니다! **DAJ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755-154-246



호프클래스 3기 입학생들



센터 페인트 칠하는 스태프들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중다일의 겨울 방학

중다일은 길고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조금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부족한 공부를 위해 학원도 다니고 책도 읽고 또 신나게 놀기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미술, 노래교실 등 학원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 각자의 취미에 맞는 활동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면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 심심해하는데 중다일은 식구 많은 대가족이다 보니 시골 시골 여러 소그룹이 형성되어 노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니 대가족의 장점을 감사히 누리고 있습니다.

권윤경 선생님 송별회

2년 반, 정말 긴시간동안 한결같이 다일어린이집의 영어선생님으로 자원 봉사해주신 권윤경 선생님께서 멀리 베이징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온가족이 모여 아쉬운 마음으로 송별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제일 가까운 친구로, 영어선생님으로 그리고 후원자로 늘 함께 하셨기에 떠나신다는 것이 실감은 안나지만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선생님을 축복했습니다. 권윤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춘절(설날) 홈커밍데이

올해도 춘절(설날)을 맞아 홈커밍데이를 했습니다. 현재 다일어린이집에 살고 있는 동생들은 친척이 있는 경우 명절에 친척집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외지의 졸업생들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올해는 많은 수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글로벌해지며 중국 외에도 캄보디아, 한국, 미국 등에 흩어져있고 중국내에서도 워낙 땅이 커서 남방으로 취직을 한 아이들은 1년에 한번 집에 오기도 힘든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형님들은 긴 시간을 들여 기차타고 버스타고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마음을 나누고 동생들에게 외지에서 이야기기도 들려주며 어디에 있으나 다일맨으로서 든든하다는 고백이 고마웠습니다. 모두 따뜻한 춘절을 감사히 보냈습니다. **DaIL**



수업하시는 권윤경 영어선생님



방학에 태권도를 배우는 중다일 아이들



춘절에 다일어린이집으로 방문하는 졸업생들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다일 작은천국 입소자분들의 생일잔치



분리수거하는 자원봉사 학생들



작은천국 청소종인 자원봉사 학생들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작은천국 이야기

2016년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사랑이 열리는 봄의 물결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일 작은천국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일 작은천국에도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제 2차 시설운영 위원회를 시작으로 입소자 간담회 및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입소자 간담회의 “칭찬합시다” 시간에는 안창근님이 평소에 장진영 간사님이 입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칭찬을 하시고, 남장우님께서는 동료인 임종규님이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하였고, 민기동님께서는 황충덕님이 적극적으로 환경미화를 하시는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다는 말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설을 맞이하여 입소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음식 함께 만들기, 그림맞추기, 투우던지기, 윷놀이, 작은음악회, 영화관람 등으로) 설날을 따

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방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작은천국에 자원봉사로 온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출석이 부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보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자원봉사의 현장이 학교에서 깨닫지 못한 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새로운 마음의 기회를 갖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작은천국에 봉사를 오시는 고마운 분들, 그분들의 모든 삶이 축제가기를 기도합니다” **DaIL**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02-2213-8004



SGI서울보증보험 후원금 전달

밥퍼 나눔 운동 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이지현 밥퍼나눔운동본부 본부장

SGI서울보증보험의 사랑나눔

지난 한해 분기별로 임직원들이 오셔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여 주신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새로이 취임하신 최중구 사장님과 임직원 50명이 밥퍼에 2016년 처음 분기 봉사를 오셨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매 분기마다 1천만원의 후원을 보내어 주시고 지난해에는 분기후원 외에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나눔과 섬김의 천사기업입니다.

더구나 새로이 대표로 오신 최중구 사장님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을 밥퍼로 잡으셨고 손수 밥을 푸시며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히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역시 섬김의 기쁨을 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일공동체와 밥퍼를 소개하며 1988년부터 이어져 온 밥퍼 이야기와 2002년 개원되어 운영되어 온 천사병원 그리고 전 세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밥과 빵을 나누는 국제NGO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처음 방문하신 임직원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었다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더구나 기독교 최초의 무료병원인 다일 천사병원이 설립 되어진 과정과 특히 해외에서는 4살부터 14살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유치원과 대안학교인 호프스쿨을 통하여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는 꿈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알려진 청량리의 밥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귀한 일, 좋은 일 하십니다." 하시며 격려해 주시니 참 힘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봉사를 하신 박 철 상무님은 "봉사할수록 기쁘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꿀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중독하면 마약중독, 알콜중독 등의 나쁜



밥퍼 나눔 하시는 최종구 사장님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좋은 중독도 있다 하 시며 호탕하게 웃으시고 즐거워 하시는 모습에서 따 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몸에 건강은 주는 운동이 그렇고 내 마음에 기쁨 을 주는 봉사가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나눌수 록 기쁘고 더욱 커집니다. 봉사하는 모습에서 진실 함이 느껴집니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봉사, 그 봉사의 기쁨을 알고 더욱 누리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최종구 사장님과 임직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단체 사진을 찍으며 "밥퍼가 최고야! 파이팅" 외치는 SGI서울보증보험 임 직원들의 힘차고 밝은 모습에서 진심에서 우러난 참 된 봉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SGI서울보증보험 가족들이 최고야! 밥퍼가 최고야! **dail**



즐거운 밥퍼 나눔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5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 피



FNC엔터테인먼트 | 유재석씨가 속해있는 연예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에서 밥피봉사를 오셨습니다. 특별히 FT아일랜드가 쌀1000KG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처럼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연예기획사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안젤루스 벨 콰이어 동아리

가톨릭대학교의 핸드벨 연주 동아리 안젤루스 벨 콰이어에서 학생 8명이 밥피 봉사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바쁜 대학생활 중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량리까지 찾아와 열심히 봉사하시고 작지만 소중하게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끄럽게 후원금을 내미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다일공동체처럼 누구보다 성실하게 봉사에 임해준 가톨릭 대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중운 이명신 부부 | 2004년 신혼여행을 시작으로 변함없이 기념일을 지켜 밥피로 찾아오는 부부입니다. 처음 따뜻한 얼굴로 찾아온 신혼부부의 얼굴은 그대로인데, 이제 세 아이와 함께 찾아와 한가족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3,000원의 돈을 모아 매 해마다 기부하기를 목표로 삼아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밥피의 일일배식비 전체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봉사가 아닌 진심을 담아 나의 것을 나누는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가정을 볼 때마다 '이런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상선 | 현대상선의 신입사원들이 밥피 나눔운동본부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어렵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가까이에서 따뜻한 밥을 대접하면서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사회 생활의 첫 걸음을 밥피 나눔운동본부와 해주신 신입사원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필리핀



연성대동계봉사단 | 연성대동계봉사단의 봉사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센터 구석구석, 마을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정비하며 아이들과 주민들과 뜻 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 펼친 마을잔치에서는 마술쇼, K-POP, 악기연주 등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단연 가장 신나는 시간은 호텔조리학과 학생의 아낌없는 실력발휘로 탄생한 한국 떡볶이와 맛탕을 간식으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손에 간식을 받아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의 입에서는 감사함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캄보디아



이용현 자매 | 2013년 1년동안 캄다일에서 해외봉사 단원으로 활동한 이용현 자매가 2월 구정 연휴동안 캄다일을 찾아 봉사하며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했던 스태프들과 몰라보게 자란 아이들과 정겹게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보며 몸은 떨어져 있으나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에 참다운 사랑의 나눔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베트남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 한 달에 두 번,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를 통해 밥퍼에 건강한 활력을 전달해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우리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단원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김없이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들 한영 한명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봅니다. 나 혼자만 아닌 '더불어 함께'를 실천하고 있는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단원들이 최고입니다.



참조은 광성교회 | 한 달에 한번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를 통해 밥퍼 봉사와 후원을 실천해주고 있는 작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참조은 광성교회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서 밥퍼 배식비로 헌금을 합니다. 어려서부터의 작은 실천이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합니다. 작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사랑의 하모니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p>신규후원회원 15.12.16~16.02.15</p>	<p>(주)도계투어, (주)북이십일, (주)위크리에이티브, (주)티이티이, GVCS1004, KAIST경영대학, 가연푸드(류경선), 가톨릭 대학, 갈보리채플카페, 강명인, 강문구, 강보현, 강일승, 강준구, 강하나, 강희진, 경규원, 고려대학교의료원, 고만석, 고성숙, 고세정, 공연지, 공희영, 광두현, 광진우, 구광우, 구교학, 구민서, 구재형, 권도영, 권선임부동산, 권성우, 권오연, 권태영, 권현진, 금재윤, 김경, 김경수, 김경숙, 김경해(김강호), 김관수, 김광선, 김근영, 김근남, 김기상, 김기수, 김남기, 김남순, 김담, 김대영, 김대유, 김동빈, 김동현, 김두호, 김만중, 김미량, 김미애, 김미은, 김미정, 김민우, 김봉규, 김상곤, 김새롬, 김석원, 김선녀, 김선미, 김선영, 김선준, 김성수, 김성주, 김성주, 김소희, 김수홍, 김순옥, 김승범, 김승윤, 김연수, 김연숙, 김영수, 김영진, 김용일, 김원욱, 김윤순, 김윤정, 김유희, 김은미, 김은서, 김은화, 김자경, 김재영(고성숙), 김재용, 김재현(고성숙), 김정숙, 김종대, 김종현, 김주영, 김준영, 김진성, 김진아, 김진옥, 김태현, 김태희, 김현구, 김현민, 김현선, 김현우, 김현정, 김형석(김용덕), 김혜숙, 김혜자, 김홍태, 김효정, 김훈, 나영숙, 남궁민, 남유진, 남윤정, 노승환, 노재학, 녹양교회, 대영문경미지우, 덕산중학교 3-12, 동기영, 동아제약, 류진우, 문병민, 문서영, 문은희, 문자영, 문종철, 미파오미, 민경민, 민경선, 민복기, 박경찬, 박경철, 박규현, 박근신, 박기훈, 박다운, 박동민, 박명철, 박미라, 박상기, 박상태, 박상훈, 박석춘, 박성숙, 박성우, 박수미,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모금함,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상봉점, 박예인, 박용제, 박우람, 박우성, 박율이, 박은지, 박은진, 박인선, 박재혁, 박정미, 박종민, 박종혁, 박종현, 박준우, 박하야, 박한빈, 박혜영, 박희숙, 방민, 방민영, 방형진, 배규태, 배상면, 배준호, 본아이에프(주), 봉정애, 부원백, 삼호특수인쇄, 서동일, 서보예, 서재영, 서주미, 서지혜, 선인봉, 선정희, 성민석, 성태수, 세무법인 석성 영등포지점, 소망교회 2여구 제부, 소혜진, 손명철, 손희동, 송민정, 송영중, 송은경, 송희은, 신건용, 신동환, 신재민, 신재윤, 신정숙, 신종기, 신종섭, 신해철, 안병현, 안소연, 안승현, 안정환, 안혜은, 안희준, 양보영, 양산중앙교회, 양서은, 양영동, 양은옥, 양인선, 양재호, 양희승, 엄기웅, 엄서이, 엄인규, 여주상, 연성대학교, 연제성, 엄기덕, 엄현우, 엄혜정, 오대길, 오승진, 오영주, 오지연, 오진광, 오찬희, 오창균, 오현중, 오홍석, 옥주경, 우승임, 우정규, 우지원, 우태호, 원미선, 유경호, 유선화, 유수영, 유승기, 유원상, 유인상, 유제남, 유희진, 윤경훈, 윤보영, 윤복인, 윤석민, 유수원, 윤정호, 윤태홍, 이건영, 이경숙, 이경현, 이국현, 이기순, 이나라, 이도형, 이명숙, 이명중, 이미경, 이미연, 이미지, 이미혜, 이보라, 이보섭, 이봉구, 이봉호, 이상윤, 이선태, 이선희, 이성재, 이성현, 이세진, 이수민, 이수정, 이수혁, 이순애, 이순연, 이승덕, 이승우, 이승형, 이신규, 이여정, 이연구, 이영근, 이영명, 이예찬, 이용희, 이윤선, 이윤지, 이은경, 이일엔지니어링, 이재광, 이정연, 이정진, 이종인, 이준서, 이준호, 이진경, 이진영, 이진봉, 이진익, 이창영, 이하니, 이해빛나, 이현주, 이현구, 이효윤, 일어나교회, 임성열, 임수진, 임순희, 임영자, 임우열, 임유정, 임인천, 임재형, 임주영, 임현민, 임희정, 장상덕, 장영숙, 장재영, 장혁수, 전미혜, 전선웅, 홍유경, 김정옥, 전중명, 전영애, 정건희, 정경숙, 정계중, 정규원, 정명희, 정미진, 정순희, 정유정, 정은옥, 정재교, 정지민, 정진호, 정창균, 정한복, 조선경, 조용운, 조지훈, 조하나, 조홍식, 주식회사 채선당, 주은진(장명규), 지현양, 진혜림, 차승식, 채명주, 채중임, 최광순, 최광재, 최남수, 최덕호, 최드보라, 최병선, 최병태, 최성우, 최영석, 최원규, 최은수, 최은실, 최지연, 최주희, 최준영, 최향주, 최호영, 케이티텔레캅주식회사, 탁수진, 평택교회(강정숙), 하현필, 한국남동발전(주), 한선혜, 한성범, 한세린, 한솔도시락 답십리점, 한수현, 한아름란원, 한창희, 허옥녀, 허인태, 허창식, 현재용, 홍성철, 홍지미, 흥공한인교회, 황미화, 황인경, 황준혁, 황지영, 황한동</p>
<p>밥퍼나눔 운동본부 15.12.16~16.02.15</p>	<p>후원물품 / 강연주 쌀(600kg), 카페베네 커피(1박스), 동의보쌈 김치(30kg), 두선 쌀(500kg), 드림재단 빵(7200개), 롯데백화점 후라이펜(15개), 본아이에프(주) 죽 100인분, 뷰티플마인드 쌀(240kg), 삼오종합식품 고추장 된장 (1통씩), 서울우유 우유(2160개), 오현주 쌀(100kg), 위크리에이티브 떡볶떡(100kg), 육순열 쌀(100kg), 이승수 김치(20kg), 이학철 쌀(266kg), 임자도 대파(15kg), 장기수집사 소고기(10박스), 전북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2박스), (주)가연푸드 갈비탕(10박스), (주)교촌에프앤비 치킨(1000인분), (주)대대FC 닭강정(1000인분), (주)라이스파이 떡 만두(1000인분), (주)라이스파이 떡만두(1000인분), (주)바르다김선생 김밥 위생마스크 비닐봉투(300줄, 100개, 3000개), (주)피피발 김밥(300줄), (사)조대림 이인우 팬치까사(100개), (주)에스앤큐플러스 마이너츠(1500개), (주)에프앤디파트너 쌀(660kg), (주)엔씨리테일 머플러(1000개), (주)웰빙을만드는사람들 피자(50판), (주)일승식품 피자(50판), (주)좋은나라 휴지(50박스), (주)채선당 사브사브(1,100인분), (주)커피스코리아 굴(10박스), (주)토마토디엔씨 삼푸(100개), (주)푸드존피자(50판), 캐논 쌀(20kg)8포대, 피플라이프 쌀(10kg)100포대, 하나편드서비스(김치냉장고, 소형청소기)3대, 한국일오승 훈제치킨(53개), 한촌설령당 삼계설령탕(1000그릇), 브릿지협동조합 오렌지주스1000개, 허준(히트템)햇떡 (4박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1000인분), 유원미트코리아 뼈 및 고기(311kg)</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5.12.16~16.02.15</p>	<p>후원금 / 강성수, 김세희 박소정 박경준 박소원 김현승 김민수, 김영년, 김영순 백정희(삼산교회), 김동원(대구한 마음병원), 김운태(법무법인화우), 김정현(경북안동), 김지후, 글로벌 녹색경영 CEO아카데미 제8기, 교태영, 군산 인피제일교회 3기 선교팀, 김정숙, 김영욱, 객재성, 남기은, 나솔희, 단국대학교 GPM, 대박, 대구 꿈동산유치원, 드림교회, 류지원, 류지인, 무명, 문인호, 목원대학교, 백김한리, 박준수(조영옥), 부안 테니스 가족,박준용, 삼산교회(경남 고성), 수원YMCA, 심은진, 아천동교회, 양희수(문경시), 용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영주제일고등학교, 유명현 유민서 유현서, 이재현(NPO스쿨), 인제대학교, 이문행 가족, 여희진 외 34명, 이선민, 이인원, 이승호 이서현, 이정환, 이혜원, 유선영, 이옥선(서천감리교회), 여주 음임장로교회, 유형창(경남대학교), 웅천고등학교, 울곡고등학교, 은천성결교회 구교환 목사, 유성수, 장세균, 조선대학교, 정광기 이은숙, 정재일 박은영 헤림찬옥, 정읍중앙교회, 전주노송교회, 장은주, 조현정 윤상 성환, 정관섭 박정태(오산비전교회), 정준영가족, 정정희, 조현진, 최지민 김민선 외, 최지원, 충북도립대학 봉사단, 최재선, 청구 꿈 단가봉사, 최인옥(강서지방 오곡교회), 총회 SCE비전트립, 카도, 파주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한정숙 하미라, (주)호우회, 한연희, 한국스카우트연맹, 한울촌 노인요양직원 일동,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 활천 제일교회 한동민목사, 한호균, 흥보경(속초감리교회), 황기수 김수애(삼산교회), 힐링코리아 Calvin College, (2/15)</p> <p>후원물품 / 하나투어(학용품, 옷), SK투어(파스), 투어플러스(학용품, 옷), 객재성(학용품, 비누), 방문객(학용품, 옷, 신발), 앙코르신화(사탕, 학용품), 코리아트래블(학용품, 신발, 가방, 옷), MS투어(학용품선물세트), 그린투어(옷), TOC(옷), 전주 노서교회(학용품), 그린투어(비누, 옷), T투어(학용품), 힐링코리아(학용품, 옷), 영천시 우수농업경영인(옷), 울곡고등학교(학용품), TOC(옷), 하나투어(학용품, 옷), 모두투어(학용품, 옷), 그린투어(학용품, 옷)</p>
<p>중국 다일공동체 15.12.16~16.02.15</p>	<p>후원금 / 김성재(Obey&Praise), 김철, 다일졸업생 모임, 리현운, 민경식(북경), 박리나, 손선화, 상해 쿤산 한인교회, 진재우, 허순규, 허순옥, 신녀사, 영안 농장경로원, 훈춘 공상연합 3조,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행공사(법인장 연계성)</p> <p>후원물품 / 권윤경(월 4회 간식지원), 보은학원(과일), 록두(쌀, 식용유), 훈춘 각 학교 봉사팀 다수</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5.12.16~16.02.15</p>	<p>후원금 / A PLUS, ARDITO,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NAHAL, POSCO VIETNAM, THANH CONG, U.E.C학원(김경중 원장), VEGAS, 강현명 이애린, 기업은행, 김영경, 서영준희, 김일기 김미덕, 김현우, 노현경, 모금함, 박미정 김예진, 박양순 이정희, 박연희,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산상선, 울산시 자원봉사센터, 유인숙, 이정자 전순호, 참조은 광성교회, 최동현, 최동주, 장순희, 최규중, 캐나다 다일공동체, 호치민중앙교회, 황보정숙</p> <p>후원물품 / Sweet Factory 빵, 통큰소백숙, POSCO ICT라면 세계 간장, 조선대학교 식료품, VEGAS라면 우유 쌀 간장 설탕 조미료, "THANH CONG" 바나나 옷, 추원미사장님(유촌냉면) 대형냉장고 조리대SET,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밥퍼29팀 과자SET, POSCO VIETNAM 빵</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5.12.16~16.02.15</p>	<p>후원금 / 기독교육원해외봉사팀, 드림로드팀, 류지원, 류지인, 심은진, 연성대동계봉사팀, 이창호, 신성자 부부</p> <p>후원물품 / 드림로드(비타민, 옷), 포일남교회(주스), 이승혜님팀(밥퍼팔찌)</p>
<p>네팔 다일공동체 15.12.16~16.02.15</p>	<p>후원금 / (김제제일교회 천부덕, 이정희 권사, 김제제일교회 2선교부, 한일교회 이국현, 찬양대 교회, 청신제일교회, 강경림 케냐,김학균), 한동대 봉사팀, 리빙스톤 아카데미 학생, 근흥교회 한성유외 김용덕, 김인숙, 김현숙, Daniel, 소지윤, 순천승산교회, 윤희균, 박행순, 순천대 네온팀, 강남대학팀, 꿈의학교 학생팀, Rupa Dhungana(루파 덩갈), 공옥희, 정희자, 김태성목사, 수산교회 고희주 목사 외 청년 20명, 좋은교회 강부형 목사, 흥익교회 손철구 목사의, 주안장로교회, 이윤성, 유은성, 순천향병원 의료봉사팀, 한창수 김명선 부부</p>
<p>우간다 다일공동체 15.12.16~16.02.15</p>	<p>후원금 / 객수산나</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5.12.16~16.02.15</p>	<p>후원금 / 김인화 박수봉 부부, 오은규, 최원호, 김기덕</p> <p>후원물품 / 김인화 박수봉 부부</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 위하여 쌀을 릴레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화해의 밥 운동	화해의 밥 나누기 캠페인은 작은 갈등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화해의 밥을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나눔 계좌	외환은행 131-22-00800-7 국민은행 010-01-0619-487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공동체 생쌀이운동)
	화해의 밥 운동	KEB하나 158-910009-61204 국민은행 467701-01-275676 다일공동체(B.P.M)
	밥퍼 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 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 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 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ioip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구좌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명

기타
월 _____원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기타 _____원

재능기부

영문 통/번역(한->영)

디자인/영상

기타 _____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dail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71기 3월 15~19일(설곡산)
172기 4월 18~22일(프랑스)
173기 5월 23~27일(미 국)
174기 7월 12~16일(설곡산)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4박 5일)

48기 7월 26~30일(설곡산)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
(5박 6일)

21기 7월 18~23일(설곡산)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국내문의: 031 585 2004 / 010 6375 8004
미주문의: 정성희 간사 +1 732 887 8378
파리문의: 구교찬 집사 +3 367 513 2164
홈페이지: www.dail.org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 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1부(8시), 2부(10시), 3부(15시)

갈보리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원장 이모세 형제 010 6375 8004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작성
예금주 서명 必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다일직원
확인전화